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 1차분 10만장 경의선 육로 통해 복송

천태종, 2·3차분 30만장 11월중 수송

내년 10월 한·중·일 천태종 낙성법회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이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 10만장을 새로 개통된 경의선 육로를 통해 10월 27일 북측에 전달했다. 11월 10일과 11월 24일 전달 예정인 2차분(15만장)과 3차분(15만장) 기와까지 천태종이 북측에 제공되는 기와는 총 40만장에 이른다.

27일 전달된 기와는 △수키와 1만장 △삼키와 8만2천장 △삼막새 3천장 △수막새 3천장 △플기과 2천장 등 전통 고려식으로 제작된 10만장

으로, 26일 대한통운의 18톤 트럭 20대에 실려져 통일대교(남북을 잇는 다리)를 건너다.

기와 전달을 위해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 등 대표단 35명과 기와 적재차량, 지게차, 정비차량 등이 북한을 방문했다. 특히 대표단에는 평북교류단체 관계자도 동참해 남북교류 현안에 대해 북측과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천태종 대표단은 영통사에서 조선경제협력위원회 산하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와

‘통일불사를 위한 기와 전달식’을 갖고 2차와 3차 전달분에 대한 약정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천태종은 27일 오전 8시 임진각 광장에서 영통사 복원 기와의 복송을 축하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관계자와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해 북측에 전달되는 영통사 복원 기와 차량을 환송했다.

천태종은 향후 조선경제협력위원회 공동으로 영통사 복원과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 10월 영통사가 준공되면 이를 기념하는 남북합동 낙성기념행사를 북측 관계자와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이 참여한 가운데

병행할 계획이다. 천태종 신도로 구성된 영통사 순례단의 방북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이번 기와 지원이 남북 종교 교류와 북한 주민의 신생활을 활성화하고 개성 인근지역의 불교문화재 발굴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8년부터 영통사 조사 발굴 작업을 실시해 천태종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의 묘실과 부도를 발굴했으며, 현재 1만8천200여평의 부지에 ▲기본 사찰 ▲동북무덤 ▲서북건축지구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총지종 8대 종령에 수성 종사 추대



총지종 제8대 종령(종정)에 수성 종사(사진)가 추대됐다.

총지종(총리원장 법공)은 10월 24일 서울 총지사서 열린 승단총회에서 수성 종사를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지난 5월 제7대 종령 목정 대종사의 임적으로 6개월여간 공석이었던 종령을 새로 추대됨에 따라, 총지종은 종령을 중심으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전력하기로 결의했다.

제8대 종령 수성 종사는 “종단 화합과 젊은 세대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종풍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모든 종도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1930년생인 수성 종사는 72년 총지종 창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래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공풍을 진작시켰다. 또한 대구경북 교구장, 중앙총의회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회당 대종사 열반 40주기 추모

진각종은 10월 16일 서울 총인원에서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 열반 40주기 추념불사(추모다례)를 봉행했다. 이날 불사는 정축, 현화, 훈화, 훈화공연, 훈화정공, 혜정 교육원장의 법어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효암 총리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진각성종 열반 40주기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진각성종의 유혼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이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율령정진의 서원, 화합과 공경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태고종, 선암사서 수계산림 회향

사미 151·사미니 46명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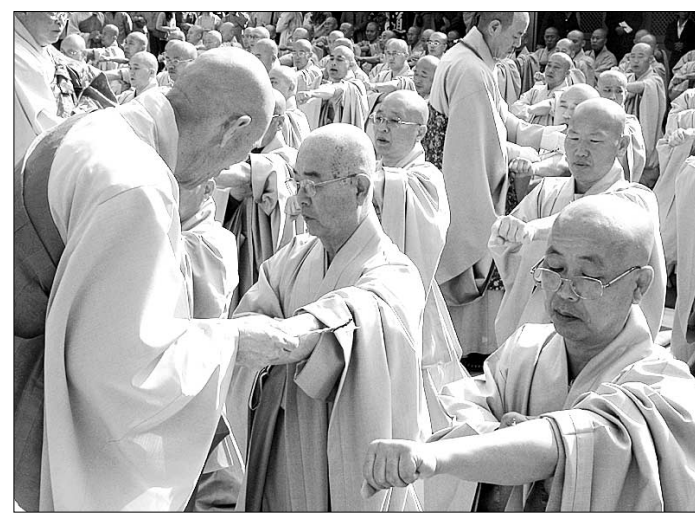
박헌태 전KBS사장 포함



태고종은 10월 22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7기 합동독도수계산림을 회향하고 사미 151명 사미니 46명 등 197명의 예비승려를 배출했다. 특히 이날 수계식에는 KBS 사장을 지낸 박헌태 씨와 2명의 동지승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권연기기자4면)

원로의장 일우스님을 교수사로, 사정원장 법장스님을 감마사로,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전계사로 실시된 수계식은 9월 29일부터 매일 1천명 정진, 1보1배, 기초습의, 예경의식 등 4주간의 교육과 득도고사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수계식에서 “세속의 탐·진·치 3독을 여의고 자신을 정정하여 하여 중생제도와 전법도생을 다하는 수행자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은 10월22일 제27기 합도독도수계산림을 회향했다. 수계식 모습.

창법 총무원장 재선출 한국 법륜종 임시총회



한국불교법륜종 제7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창법스님(논산지장암·사진)이 재선출됐다. 한국불교법륜종은 10월 20일 논산 총무원에서 제40회 임시 중앙총회(의장 탄광)를 열고 창법스님의 재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앙총회는 종단 화합과 안정에 기여해 온 창법스님의 공로를 인정했다.

미륵종 하반기 종도연수 교육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 16~18일 울산 언양 중앙교육원에서 불기 2547년 중앙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종헌종법, 미륵선법, 사찰과 포교 주제의 강의와 종무행정 설명회, 종단 발전과 화합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미륵종은 18일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승려 자질을 키우기 위한 법계고시를 실시, 대종사 1명, 종사 3명, 종덕 6명 등이 법계를 뚫수했다.

종단소식

포항시와 교류협정 체결

위덕대는 10월 13일 포항시와 관·학 협정을 체결했다. 향후 위덕대와 포항시는 대학 장비 및 시설을 공동활용, 공무원 위탁교육과 연수프로그램 운영, 포항시 공무원들의 학부·대학원·평생교육원 진학 등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덕대는 지역기관간의 주요 정책 개발과 지역 인재 네트워크 구축하는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식, 상응의식을 비롯해 점안, 이운, 장의, 방생 등 제반의식, 전문의식, 특별법회, 명절의례 등이 총망라됐다. 총화종은 모든 종단 소속 사찰에 <의식법전>을 보급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남정스님은 “<의식법전>은 의식과 법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보감으로서 종단의 법도와 의식을 여법하게 시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1)592-8891

총화종 의식법전 발간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종단 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의식의 통일을 위해 최근 <총화종 의식법전>을 발간했다. 법전에는 일용

관문사 영산대제·천도제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는 11월 15~17일 육보보전에서 영산대제 및 합동천도제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조상 천도를 위한 입재식이 11월 2일 열린다. (02)3460-5300

게시판

행사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복지관 1층 진료실에서 무료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으로 진행되는 건강상담은 당일 선착순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경희의료원 의료진이 상담을 맡는다. (02)929-7950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30일 오전 11~오후 2시까지 복지관 강당에서 100세 어르신 효도잔치를 연다. 은평구 관내 100세 어르신과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모범장수노인 영

상십 상영과 어린이집 재물잔치 등으로 진행된다. (02)385-1351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11시30분, 오후 1~3시 복지관 1층 물리치료실에서 지역주민 무료물리치료를 실시한다. 요통, 관절염, 오십견 등 물리치료가 필요한 지역주민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02)852-0525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31일 오후 2~4시 3층 교육실에서 종풍·차매 세미나를 개최한다. 종풍·차매를 알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 월·금요일 오전 9~오후 5시 도서관, 반납관리 및 도서관 정리 등을 담당하게 되며 사하구 거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051)264-9033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무료컴퓨터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녹번동 어르신전용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실은 매월 첫 주 개강하며 오전 10~오후 4시 이용가능. (02)385-1351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 노인요양원은 간

호사(조무사)를 채용한다. 숙식이 능자를 대상으로 하며 준비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관련자격증 사본 각 1통, 접수방법은 전화접수 후 수시면접 방식으로 진행. 마감 10월 31일. (055)329-1733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원이기에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사 성광수

-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 스포츠투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의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져서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사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 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 선정 기념, 신착순 고객시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9114

붓다클럽(Buddha Club) 창립 행사안내

붓다클럽(Buddha Club)

한국에 붓다들이 모여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매일 부처님전 백팔배를 올린다. 그들은 매일 염불(참선)을 천번을 칭명한다. 그들은 매일 경전을 독송하고 이웃에게 전한다. 우리들은 매일 정기적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한다. 우리들은 매일 일정액을 보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한국불교의 변화와 불교 근간을 이루는 사부대중 가운데 우바새 우바이 역할, 종대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재가불자현장 실현을 위해 5대 실천 덕목을 실천코저 합니다. 재가불자 여러분의 참여와 동참을 권합니다.

2003년 10월 발기인 일동 합장

불교의 생활화 실천하는

Buddha Club 붓다클럽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15

창립 행사안내

- 일 시 : 2003년 11월 13일(목) 오후 1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조계사 입구)
- 대 상 : 가입을 희망하는 불자
- 문 의 : 02)732-1215
- 연회비 : 12만원 (1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1-04-006129 붓다클럽
- 조직 : 붓다클럽은 전국 조직으로 구성한다.
 - 붓다클럽은 시·도 지역을 행정 조직으로 한다.
 - 붓다조직은 기본 7명을 1조로 하는 세부 조직과 그 팀장으로 한다.
- 클럽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회원에게 고유번호 부여 호신 회원증을 수여한다. 붓다클럽 전회원에게 붓다클럽 성전을 보급한다.